

일주 문



자랑스러운 보문인상 수상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12월 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보문교 재경동문회 주최 '보문 동문회 송년의 밤'에서 자랑스러운 보문인상에 선정돼 공로패를 받았다.



금강산림대법회 회향
순천 송광사 주지 원행 스님은 12월 5일 오전 11시 금강산림대법회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다정 스님(前 백양사 주지) 초청 법문이 진행된다.(061)755-0108



원공국사 승묘탑 재현품 정안법회
원주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은 11월 25일 원주 거문사에서 원주불교 증흥을 기원하는 거문사 원공국사 승묘탑 재현품 준공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제1회 구미지역 신행단체 합동수련회
구미 원각사 주지 대혜 스님은 11월 17-18일 '제1회 구미지역 신행단체 합동수련회'를 원각사 수련관에서 봉행했다. 수련회에는 신행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지도자육성재단 이사장 취임
조계종 중앙신도회 여익구(前 한국남동발전 감사) 부회장이 11월 16일 한국지도자육성재단 19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9회 포교대상에 정무 스님

공로상 송묵 스님·박수관씨 비롯 원력상 6명 수상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1월 26일 오후 2시, 포교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19회 포교대상' 대상 수상자에 정무 스님(조계종원로의원, 안성 석남사 회주)을 선정했다.

공로상은 송묵 스님(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과 박수관 사단법인 광고기획팀게 부산본부장이 수상했다. 원력상은 외국인출가자인 무진 스님과 일희승(서울구치소 법회 주관), 왕선사(부산여성불자회장), 성행 스님(사단법인 동련 이사, 이혜숙(조계종 북지재단 지문의원), 자용 스님(중앙승가대 부설 보육교사 교육원장)에게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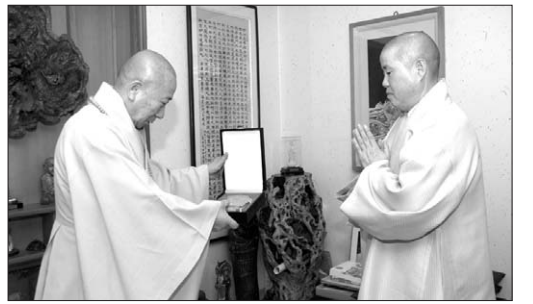
정무 스님은 1957년 은척사에서 전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영주포교당 및 용주사, 신희사, 석남사 등 여러 사찰소임을 역임하며 사찰 중장봉사 및 법회, 강연, 수련을 통해 포교에 앞장서왔다.

또한 1971년부터 용주사에서 효(孝)문화 살리기를 위한 수련프로그램을 장안해 운영하는 등 효문화 전파를 위해 노력해 왔다. 공로상을 받은 송묵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지도자교육은 물론 지역사회 포교를 위한 유지권 건립, 군경활동원 불자회를 결성



해 전법활동에 힘써왔다. 현재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 학장을 맡고 있다. 박수관 광고기획팀게 부산본부장은 범어사 신도회장, 부산불교실업인회 상임부회장, 부산불교지도자포럼 수석부회장 등을 맡아 지역사회 포교에 앞장 서왔다.

감로심장회에 감사패 전달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흥파)은 11월 21일 관음종 총무원장실에서 사단법인 대한불교감로심장회(이사장 혜운)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1990년 설립된 감로심장회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모금활동과 수술비 지원을 하고 있다. 교계 사회봉사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흥파 스님은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뜻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삼랑성문화축제 추진위 난치병 성금 전달



삼랑성 문화축제 추진위(공동위원장 혜경·지용택)는 11월 28일 강화군청 군수실에서 최두나 어린이(최수성 군위축증)에게 540만원의 치료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제7회 삼랑성 문화축제 기간에 난치병 어린이 돌기 바자회 등을 통해 모금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 불교계 역할모델 개발 세미나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 산하 (사)지혜로운여성(은)은 11월 27일 한국불교여성문화연구소와 국제회의장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불교계 역할모델 개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동국대 이혜숙 교수가 '불교계 저출산고령사회 인식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노인특화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NGO리서처연구소 윤남진 부장은 '시민사회적 발상을 중심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 사활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보현사 신협 일본 남장원 여행



대구 보현사 신협동조합이 11월 6-9일 일본 사할 산재를 다녀왔다. 불교전문 금융기관인 보현사 신협동조합은 조합원 및 임직원 42명과 함께 행사비용 전액을 조합에서 부담해 남장원 등 일본 북극수지역을 순례했다.

70대 만학도 동국대에 장학금 기탁

70대 만학도기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50만 달러(약 4억 6000만원)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재미 사업가이자 불교문화대학 불교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조일환(70·사진 가운데)씨가 11월 26일 장학금 50만 달러를 학교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씨는 "불교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형편이 되는 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경북 영천 출신인 조씨는 대구상고를 졸업하고 대구의 무역회사에서 일하다 1971년 미국으로 이민 가 지금은 뉴욕에서 스포츠 의류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조씨가 기탁한 장학금을 불교문화대학 재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불교포커스 신협진 기자 신부 정효선양과 12월 16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세안프라자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제15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 KBS '차마고도'

제15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KBS 인사이트 아시아 '차마고도-순례의 길'(서용하 PD)이 선정됐다. 불교언론문화상은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는 11월 26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5부작으로 제작된 '차마고도'는 문명교역로인 차마고도(茶馬古道)에 주목하고 중국 쓰촨에서 티베트 라사에 이르는 2100km 구간을 통해 취재한 프로그램이다. 심사위원들은 "스케일이 방대한 대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TV부문 최우수상은 KBS 부처님오신날 특집 '원승 스님의 화엄으로 가는 길'(이승은 PD)이, 우수상은 SBS 스페셜 '0.2평의 기적, 절하는 사람들'(안중섭 PD)이 수상했다. 라디오부문 최우수상은 국악방송의 '웹2.0시대에 만나는 붓다'(최유이 PD)가, 우수상은 부산BBS의 부처님오신날 특집다큐 '사랑해요 필리핀, 마할기따 법관 스님'(진영조 PD)이 선정됐다.

신문부문 최우수상은 김석종 기자(경향신문)의 '염화실의 향기 한국사상의 뿌리를 찾아서'가, 우수상은 장재훈 기자(주간불교신문)의 '백인의 남자를 찾아서'가 각각 선정됐다. 이어 출판부문 최우수상은 <사찰 100美 100選>(허균 지음, 불교신문사출판부)이, 우수상은 <은문-세상에서 가장 먼 만행>(조연현 지음, 오래된미래)이 차지했다. 이 밖에 불교언론인상은 이은운 금강불교신문 사장이, 특별상은 이겨중 KBS TV제작본부 드라마 영상팀 국장급 제작위원과 KBS 가정의달 특집드라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몇 가지 질문' 제작팀이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TV 부문 22편, 라디오 부문 8편, 신문 부문 7편, 출판 부문 18편의 작품이 응모했다. 상금은 대상에 5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불교언론인상에 300만원이 지급된다. 시상식은 12월 11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02)2011-1770 여수령 기자

"용기 있는 누이들, 존경합니다"

마이클 혼다 美 하원의원, 나눔의 집 방문

"누이들(Sisters),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11월 26일 국내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지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장 원행)에 일본계 미국인이 찾아왔다. 시종일관 친근감 있는 표현과 표정으로 할머니들을 대하던 그는 지난 7월 미국 하원의원에서 '일본정부 책임인정 요구 위안부 결의안'을 이끌어낸 주인공, 마이클 혼다 하원의원(사진 왼쪽)이다.

나눔의 집을 찾은 혼다 의원은 할머니들에게 "아름답고 강한 여러분들을 황금과 같은 존재"라고 극찬하며 "여러분들의 증언이 있었기에 미 하원의 결의문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깊은 존경을 표했다. 이어 나눔의 집 내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을 둘러보면서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역사가 존재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이



역사관을 통해 역사문제를 배워야 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혼다 의원은 나눔의 집에서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는 '피스트로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피스트로드는 한·일 청년들이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합숙 프로그램이다. 혼다 의원은 "12월에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므로 피스트로드에 참여했던 일본 학생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혼다 의원은 11월 28일 연세대 특강을 하며 받은 강연료를 나눔의 집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강진 기자

공고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종 법인설립
대한불교선종의 종지종풍을 함양하여 불교중흥과 불교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문화관광부로부터 2007년 11월 9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음을 공고합니다.
종단임원 소개
종 정: 호 답 박호영
원로의장: 미정 (공석중)
종회의장: 성 철 윤주봉
총무원장: 정 관 박수학
총무부장: 성 해
교무부장: 해 중
재무부장: 일 성
포교부장: 호 은
사회부장: 선 광
사서실장: 일 응
기획실장: 일 우
교구 임원
경주교구 포항교구
총무원장 지 법 일 우
총무국장 보 성 진 설
교무국장 수 명 법 열
재무국장 화 수 일 응
사회국장 선 광 해 문
감찰국장 지 명
울산교구 영천포교원
총무원장 무 초 범인성
총무국장 청 명
총회의원 지법, 무초, 일응, 지명, 청명, 일우, 일령, 호은, 자인, 일소, 혜진.....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오봉산 대원사 ☎ 054)261-7777 / 팩스 054)261-6119
■총무원: 경북 경주시 동방동 831-99번지 남산 천선사 ☎ 054)748-0462 / 팩스 054)771-6606
2천만 불자의 하나된 염원으로 -
동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을 열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불교 종립대학으로서, 100년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만반의 준비를 통해 대한민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당당한 일원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법학계를 이끌어갈 동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를 다함께 성원해주십시오. 동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저희 동국인과 2천만불자 모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법학교육에 관한 든든한 저력, 문화산업법에 대한 완벽한 준비 - 동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확인하십시오